

道, 미국 시애틀 경제사절단에 투자 설명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새만금 지역 투자 제안 김 지사, "투자환경·미래기술 개발 적극 지원"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카이스트에서 시애틀 경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애틀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전북자치도가 시애틀경제개발공사 간 상호 협력방안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관영 도지사, 브루스 해럴 미국 시애틀 시장, 브라이언 수렛 GSP대표 외 마이크로소프트(MS), 보잉사, 아마존 관계자 등 투자사절단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시애틀 경제개발공사(GSP)는 미국

위싱턴주 시애틀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개발 지원기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아마존 등의 32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 및 투자자 유치, 부지소개, 무역진흥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김 지사가 시애틀시가 속해 있는 위싱턴주에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이번 행사로 이어져 더욱 뜻깊은 의미를 가지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브라이언 수렛(GSP 대표)에게 "자녀 위싱턴주와의 공공외교 일환으로 주정부와 보잉, 마이크로소프트를 방문했다. 앞으로 위싱턴주의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조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김 지사가 직접 새만금 지역의 투자환경을 소개했으며 전북자치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방위산업, 모빌리티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마이크로소프트·보잉사 등 글로벌 기업의 전북 새만금 투자를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향후 시애틀시의 사절단이 전북을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업 투자 및 미래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북에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미국 시애틀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한국에 방문한 가운데 지난 19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 브라이언 수렛 GSP(시애틀 경제개발공사)대표 및 마이크로소프트(MS), 보잉사, 아마존 관계자 등 투자사절단에게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상호 협력방안 및 투자 설명회를 갖고 있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원스톱 지원

도, '신(新) 취약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 선정... 12억원 확보

전북자치도가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밑그림이 그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신(新) 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12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7월부터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고립·은둔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따라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를 통해 지역 내 학교·병원 등 공공·민간기관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활한 청년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센터 인력을 채용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보다 내실있게 센터가 운영되도록 개소에 민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장석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지역 내 청년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외부활동을 독려하는 등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정책으로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전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민생이 답”... 전북자치도, 어려운 서민·경제 살릴 방안은?

'4개월여간 준비' 23일 민생대책 발표에 관심

전북특별자치도가 올 상반기 내내 아심차게 준비해온 '민생살리기 대책사업'을 곧 발표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3일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22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남에 따라 경제난으로 가파르게 오른 서민 물

가를 쟁기고, 도민의 살림과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현장 행정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60여개 세부 사업의 추진 방법과 방향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민생일보, 행복만보'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이번 민생살리기대책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각 실국이 시군과 소

통을 통해 반드시 챙겨야 할 현실적인 민생프로그램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책에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창업기업, 건설업체 지원 방안과 위기아동·장애인지원, 전기안전 취약개선, 청년 주거비완화, 전세피해자보호, 의료접근성강화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행정과 경제부지사를 공동부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추진단'을 꾸려졌고

민생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가 매일 2회 직접 이들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민생현장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전북자치도 여건과 정부 정책 동향,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이번 민생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도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도정 운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오늘부터 집중안전점검 추진

전북자치도가 도내 주요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요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위험성이

높아진 어린이이용시설, 유원시설, 폐저시설, 노후건축물 등 10개 분야 1,52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가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모든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하며,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의 접근성이 어렵거나 육안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은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다양한 과학기술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보수보강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가정용자율점검표 및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표를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도민 스스로 '내 집과 내 점포는 스스로 점검한다'는 자율 점검 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 농업으로 나아가다

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공모사업 선정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산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디지털 농업 전환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26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과기부의 5대 권역별 초광역 협업사업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권역별 지자체 간에 협업을 AI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자치도가 주관하는 '호남권 AI 지역확산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284억원 등 총사업비 426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자율작업 관계 체계를 실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일례로 농작업 기기(트랙터, 이앙기 등)에 인공지능 기반의 원격 자율작업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자율작업 실증을 핵심으로 하는 '농기계 원격작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농작업 환경(기후, 토양 등), 농

기계 운영 정보(상태, 부하 등), 자율작업 영상과 같은 노지 농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및 학습할 수 있는 '통합관계네트워크'를 개발한다.

이번 선정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과기정통부 사전적격성 심사, 정부예산안 반영, 국회 예산심사 대응·확정 및 공모 신청,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호남권역 광역지자체 및 참여기관이 하나가 돼 분주하게 노력한 권역별 성과로 꼽힌다.

오택립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 주력 산업인 농생명산업에 농생명 데이터(data),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을 통해 미래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농생명산업의 디지털산업·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도내 데이터(data)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관련기업이 동반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